

금융허브경쟁력 제고방안 및 시사점

2008. 8.

《 著 者 註 》

본 보고서는 2015년 까지 동북아의 주요 금융허브로 성장한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2003년 이후 금융허브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 많은 부분,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보였으나 외부 연구기관에서 평가한 서울의 금융허브경쟁력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허브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 외부 연구기관의 평가체계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 연구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금융허브 구축전략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보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금융허브 구축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제시를 기대합니다. 관련문의는 아래의 필자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 형 철	hckang@ksri.org	02)3771-0680
김 민 석	mskim@ksri.org	02)3771-0827
김 한 수	hans@ksri.org	02)3771-0623
송 민 규	mksong@ksri.org	02)3771-0661

목 차

Executive Summary	v
I. 금융허브 추진전략 성취도 평가	1
1. 추진경위	1
2. 성취도 평가	4
II.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및 제언	9
1. SIFIC의 평가 및 제언	9
2. GFCI의 평가 및 제언	16
III.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 방안	29
1. 기존전략 보완의 필요성	29
2. 추가전략 제안	33
IV. 결론 및 시사점	57
참고문헌	61

<부록 1> 더블린 역외금융센터 65

<부록 2>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 75

표 목 차

<표 I-1> 금융허브 구축상황 점검 주요 회의 일지	3
<표 I-1> 금융허브 구축상황 점검 주요 회의 일지(계속)	4
<표 I-2>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 과제 이행사항	5
<표 II-1> 부문별 서울의 경쟁력 현황	14
<표 II-2> 서울의 SIFIC 경쟁력 취약분야	15
<표 II-3> GFCI의 주요 평가항목	18
<표 II-4> GFCI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19
<표 II-5>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제금융센터	20
<표 II-6> “ai” 센터에 대한 런던상공회의소의 평가	21
<표 II-7> 아시아 지역 주요도시 평가	22
<표 II-8> GFCI 순위와 상관성이 높은 외부평가요소 및 주요도시 포지션 ..	24
<표 III-1>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우선순위	30
<표 III-2> 역외금융센터의 정의 및 포함 국가	51
<표 IV-1> GFCI 순위와 상관성이 높은 외부평가요소	59
<표 부록-1> 더블린 IFSC 입주기관에 대한 심사내용	69
<표 부록-2> 주요 금융허브 국가의 법인세율 비교	71

그 립 목 차

<그림 I-1>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2
<그림 II-1> SIFIC 종합경쟁력지수 부문별 항목 구성	10
<그림 II-2> SIFIC 1(2007) 아시아 주요도시 금융허브경쟁력 현황	12

약 어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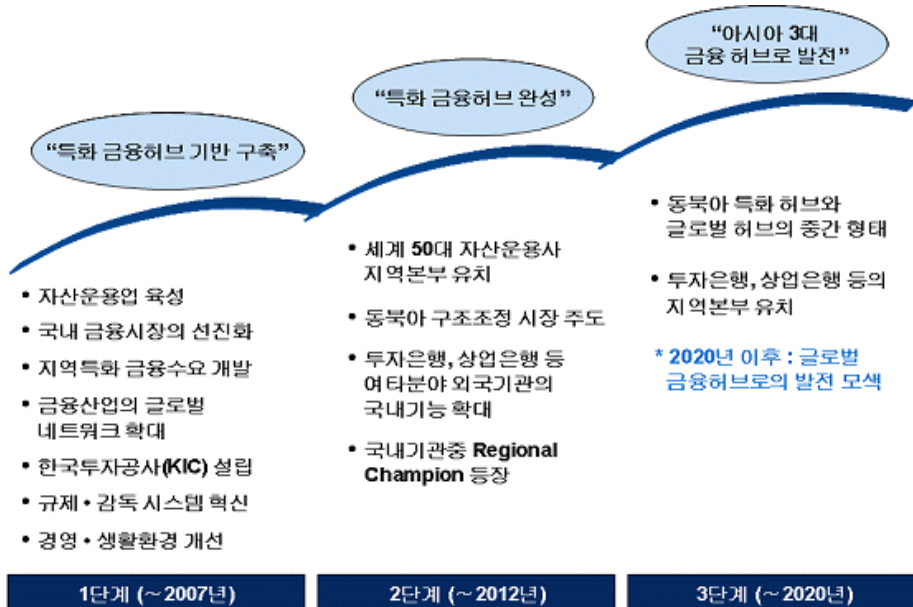
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UM	Assets Under Management
CAC	Certification Advisory Committee
GFCI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ICS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IFSC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IFSL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
IDA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FC	Offshore Finance Center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SIFIC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
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
UCIT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 Executive Summary 》

1. 금융허브 추진전략 성취도 평가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
 - 제1차 금융허브회의에서 단계별 완료 시점을 특화금융허브 구축 2010년(기존 2012년), 최종목표 달성 2015년(기존 2020년)으로 조정
 - 현재 추진전략의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하는 과정

<그림 S-1>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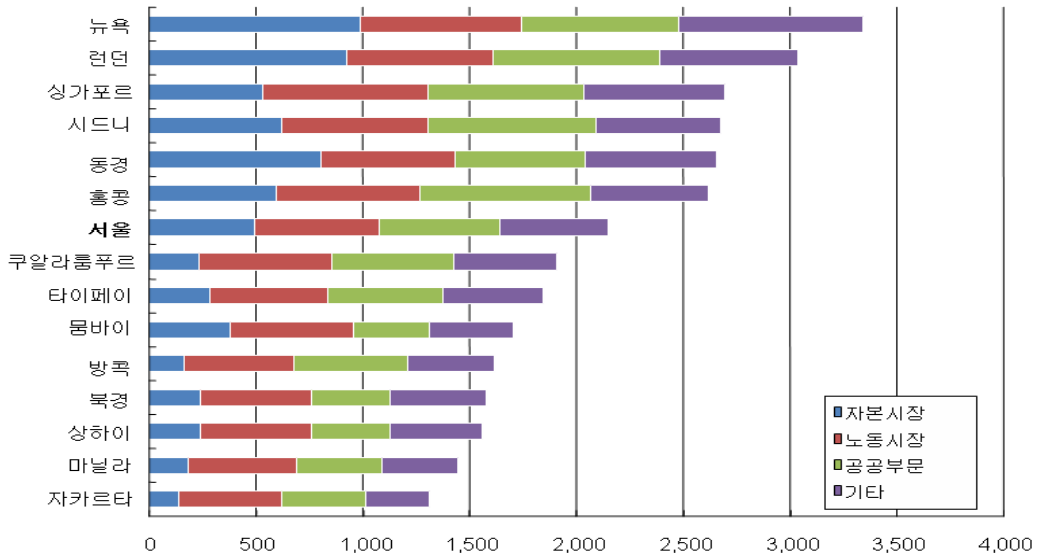


2.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 현재의 이행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설문조사 및 외부연구 등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관련 규제 및 감독의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KDI의 국내 금융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42.9%) 한국의 경직적 규제시스템을 금융허브 구축의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
 - 국내 금융산업 관련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들은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며 한국의 금융허브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36.5%)

- 아시아 주요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 서울 금융환경 보고서(동 보고서는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됨, 이하 SIFIC으로 표기)에서의 서울의 금융경쟁력은 상위그룹 대비 79% 수준
 - 아시아 지역 주요도시들 중 싱가포르·시드니·동경·홍콩의 4개 도시가 역대 상위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서울은 이들 선두그룹에 약 20% 뒤진 경쟁력을 보유(역대 5위)
 - 서울은 중·하위 그룹 대비 자본시장 경쟁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그룹과 비교해서는 모든 평가부문에 있어 경쟁력 열세를 보임

<그림 S-2> SIFIC 1(2007) 아시아 주요도시 금융허브경쟁력 현황



- 런던시가 발표하고 있는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이하 GFCI로 표기)에서도 서울은 지속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GFCI의 세 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서울은 대상 도시 50여개 도시 가운데 40위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도시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2008년 3월에 발표된 GFCI 3에서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은 전 세계 59개 도시 가운데 51위로 지난해에 비해 9계단이 하락

- GFCI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서울의 자본시장 하부구조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SIFIC의 평가와도 일관됨

<표 S-2> GFCI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아시아 주요도시의 GFCI 3 순위	GFCI 1 순위	GFCI 2 순위	GFCI 3 순위	순위변동 (최근 6개월)
1	홍콩	3	3	
2	싱가포르	4	4	
3	동경	9	10	△1
4	시드니	7	9	▽1
5	두바이	25	22	▽2
6	멜버른	18	19	▽10
7	상하이	24	30	▽1
8	바레인	-	44	△5
9	북경	36	39	▽7
10	카타르	-	47	-
11	뭄바이	39	41	▽7
12	오사카	-	36	▽14
13	서울	43	42	▽9
14	웰링턴	37	46	▽6
-	타이페이	-	-	
-	방콕	-	-	
-	쿠알라룸푸르	-	-	
-	마닐라	-	-	
-	자카르타	-	-	

— 자본시장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SIFIC의 경우 서울은 아시아 중·하위권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시장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여타 도시와 동등 또는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 자본시장의 질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GFCI의 결과와 일맥상통

— 이러한 결과는 2003년 이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금융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3.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방안: 경쟁력 연구기관 의 제언

- SIFIC을 통해 파악된 서울의 경쟁력 취약 분야는 다음의 7개 분야

<표 S-3> 서울의 SIFIC 경쟁력 취약분야

세부항목명	1위 도시 대비 비중(%)	역내 순위
노동시장 유연성	52.16	10/13
전문인력양성 교육	86.44	6/13
해외인력유입	51.60	13/13
국내인력국제경험	51.70	13/13
정부효율성	43.28	10/12
도시이미지	65.37	13/13
외국인편의시설	62.00	9/13

- 위의 취약분야를 역내 선두그룹 수준으로 개선 시 서울의 경쟁력은 약 6.4% 개선
 - 노동시장 경쟁력 선두그룹 대비 84.5%, 공공부문 87.9%, 기타부문 85%까지 상승하여 전체 경쟁력은 선두그룹 대비 85% 까지 상승
 - 그러나 취약부분만 개선 후에도 선두그룹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의 개선전략 만으로는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로서의 성장목표는 달성 불가능

-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 외부평가요소를 결합하여 구축된 GFCI의 경우, 서울은 GFCI와 상관관계가 높은 다음의 11개 외부평가요소의 경쟁력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S-4> 서울의 GFCI 외부경쟁력지수 취약분야

지수(발표기관)	GFCI 3와 R ²	서울 (Quartile)	홍콩 (Quartile)	싱가포르 (Quartile)
Capital Access Index (The Milken Institute)	0.512	3	1	1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IMD)	0.490	4	1	1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0.476	3	1	1
Opacity Index (The Kurtzman Group)	0.440	4	1	3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The Fraser Institute)	0.417	3	1	1
JL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Jones Lang LeSalle)	0.394	4	2	2
E-Readiness Scor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0.387	3	1	1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The World Bank)	0.366	3	1	1
JLL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 Volumes (Jones Lang LeSalle)	0.355	3	1	1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0.353	4	2	1
Operational Risk Rating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0.309	4	2	1

- 위의 취약부분의 개선 시나리오 분석결과 서울의 경쟁력은 점수 기준 최대 19%까지 개선

- SIFIC 및 GFCI의 가상 시나리오 분석결과 서울은 자본시장 하부 구조 관련 취약 분야의 개선 만으로는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 구축목표의 달성이 어려움
 - 양 연구 모두 취약분야 개선을 통해 전체 경쟁력의 6~19%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역내 선두그룹 대비 경쟁력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취약구조의 개선을 통한 전반적 국제금융업 수행에 필요한 환경의 조성은 장기적인 기반 구축 측면에서 효과적인 전략이나, 단기적 파급효과를 얻기에는 역부족

- 반면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은 기반구축의 장기적 과제에 치중하고 있어 단기적 자본시장 관련 구체적 추진과제의 선정이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금융허브 전략의 중요도 및 시기 적절성에 따라 금융허브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강·약 정도를 추측해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해본 결과, 정부의 전략 이행은 후선순위 과제의 성취도가 높은 반면 우선순위 과제의 성취도는 미흡
 - 정부는 제도적 측면, 특히 금융규제 관련 전략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제도의 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그 파급효과가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 자본시장 산업 관련 구체적 과제의 이행속도는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과제의 구체성, 추진속도 면에서 후순위 과제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금융허브전략의 우선순위 전략의 중점적 이행 및 자본시장 관련 구체적 추가 전략의 설정이 필요

4. 추가전략 제언

가. 해외 협작을 통한 거래소의 국제화

- 해외 협작을 통해 KRX를 동북아 자본시장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협작을 통한 거래소의 국제화는 금융허브 구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
 - 동시상장과 교차상장 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의 절감, 인지도 상승
 - 투자기회 확대로 투자자 효용의 증대
 -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발전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KRX의 상장, 외국기업의 국내 IPO 활성화,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연계 강화를 제시함
 - KRX의 상장은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임
 -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상장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제거
 - 교차상장, 교차매매 방식에 의한 외국 거래소와의 연계를 추진

나. KIC 재원의 보강

- 현재 KIC는 운용규모가 작으며(2008년 4월 현재 200억 달러), 자금 원천의 대부분이 외환보유고이기 때문에 운용에 제약이 있음
 - 이로 인해 전략적 자산위탁을 통한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 유치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외국환평형기금도 환율 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KIC에 추가로 자금을 위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싱가포르의 "금융부문발전기금"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을 벤치마킹한 가칭 "금융허브개발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의 일부를 KIC의 운용자금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자본시장 관련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 : 벨기에, 룩셈부르크 형

- 금융인프라 중 예탁·결제 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의해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
 -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국제예탁결제기구(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ICSD)인 Euroclear와 Clearstream을 유치하여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특화 금융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제적 예탁·결제기능의 국내 유치, 효율적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구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라. 역외금융센터 기능 강화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단기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역외금융시장을 육성

- 역외금융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홍콩과 강력한 유인책으로 최근 역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은 초기 발달과정에서 파격적 세금우대 등의 적극적 유인책을 제시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유치에 성공하였음
-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혜택 제공은 이미 한국 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이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

○ 우리나라는 금융산업 이외의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싱가포르, 동경 등과 같은 내외분리형 역외금융센터를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

- 자국 내 산업 보호와 외국 금융기관 유치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내·외 거래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통한 전략이 유효
-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허브 구축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 역량 제고를 지향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러한 분리형 정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음

○ 특히, 최근 급성장한 금융센터의 경우 역외금융 관련 혜택제공을 주요한 경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에 주목

—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 세계최대 금융센터인 런던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특별금융지구(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IFSC) 지정을 통해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결과 단기간 내 세계적 국제금융센터로 성장

《 Abstract 》

This research looked for ways to improve Seoul's competitiveness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hub. Korea has been pursuing strategies to become an international financial hub since 2003. The national strategy for developing 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IFC) was established by a presidential committee in December 2003. The goal was to foster Seoul into a major financial hub in northeast Asia by 2015. According to the plan, the first phase of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IFC" has been completed. This phase included renovating the regulation system, improving living conditions for foreigners, and establishing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lthough many of tasks were completed, Seoul's potential as an IFC is at best stagnating despite all the efforts. Seoul's standing in the GFCI 3(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published by the Corporation of London has deteriorated since the last report released in March 2008. KSRI's report on Asian financial centers put Seoul in fourth position among 13 Asian cities. However, the top three cities, Hong Kong, Singapore, and Tokyo,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Seoul.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se two reports, we found that most of Seoul's weaknesses fell into three categories: business infrastructure, regulation, and economic freedom. Also, the existing government's IFC strategies are too broad and there are no priorities among the many tasks included in the national IFC strategies. We have concluded that setting up priorities in pursuing IFC strategies will strengthen Seoul's competitiveness. We classified the existing IFC strategies according to priorities, from high priority(1st) to low(4th) priority. And, we found that some items needed to be acted upon with greater urgency. In conclusion, we suggest four top priorities to accommodate the existing IFC plan and strategy.

I. 금융허브 추진전략 성취도 평가

1.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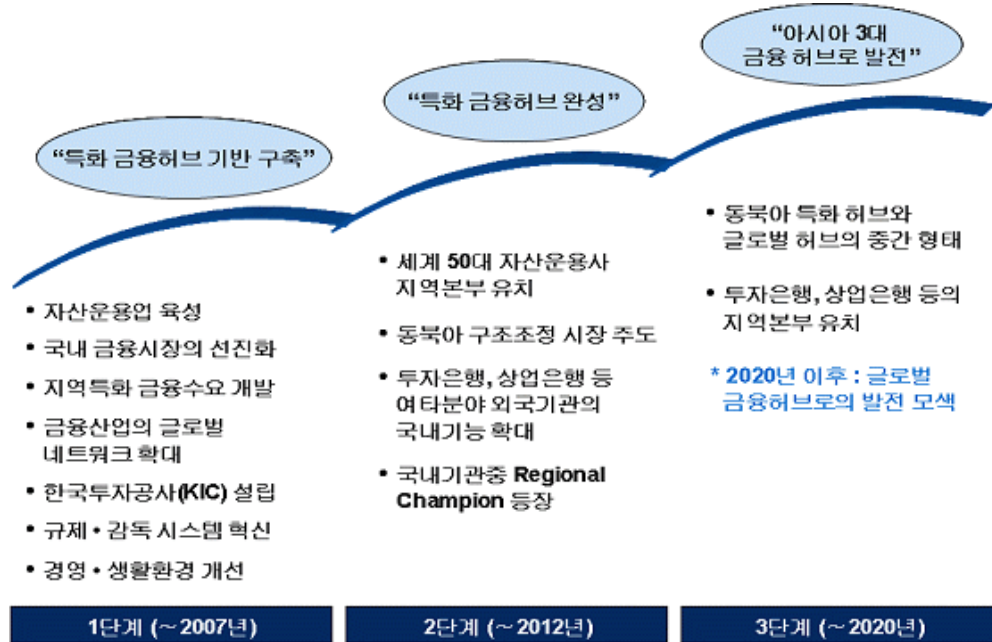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 목표를 수립
 - 정부는 거대한 실물경제 기반, 잠재적 자산운용 수요, 동북아 지역의 차별적 금융수요 존재 등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 이에 정부는 2015년까지 3대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을 목표로, 3단계에 걸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¹⁾
 - 특히 정부는 자산운용업 특화 금융허브 구축을 1단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7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

<금융허브 7대 추진과제>

- | | |
|--------------|---------------------|
| ① 자산운용업 육성 | ② 금융시장 선진화 |
| ③ 지역특화 금융개발 | ④ Global Network 강화 |
| ⑤ 한국투자공사 설립 | ⑥ 규제·감독시스템 혁신 |
| ⑦ 경영·생활환경 개선 | |

1) 제1차 금융허브회의에서 단계별 완료 시점을 특화금융허브 구축 2010년(기존 2012년), 최종목표 달성 2015년(기존 2020년)으로 조정함

<그림 1-1>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자료: 재정부 보도자료(2003-12-11),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제3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
 주: 본 로드맵은 2003년 12월 제 3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향후 단계별 완성
 시점 수정사항이 그림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금융허브 구축전략의 수립 이후 2차례의 금융허브회의와 3차례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2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는 금융허브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재검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또한 2007년까지 매년 개최된 경제부총리 주재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허브 7대 추진과제의 추진 실적 및 과제를 세부 점검하고 있음

<표 1-1> 금융허브 구축상황 점검 주요 회의 일지

일시	회의명	주요 내용
2005년 6월	제1차 금융허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허브 3대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금융허브 추진 목표를 명확히 함 * 금융허브 3대 추진목표: 금융시장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국제화, 금융거래의 국제화 ** 금융허브 3대 추진전략: 금융인프라 개선, 선도금융시장·업종 발전,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 금융허브 구축을 둘러싼 역내의 관심과 경쟁에 따른 목표 달성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2단계의 완성은 2010년(기존 2012년), 3단계 2015년(기존 2020년)으로 단축·조정
2005년 12월	제1차 금융허브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신사 구조조정 마무리,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KIC 설립 등에서 성과가 있는 반면 경영·생활환경 및 금융시장 국제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 • 2006년 금융허브 추진 계획으로 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투명하고 개방된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허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선도금융시장 발전기반 구축**, 동북아 역내 리더십 구축***,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정함 *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 금융허브 추진체계, 금융허브 조성의 지원,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금융허브 기반 및 환경조성 등 ** 자산운용업, 채권시장, 신용파생상품 *** 외국금융기관 한국진출,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화, 역내 개도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동북아 대규모 개발 인프라 투자 • 금융허브 정책이 민간의 역동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 구축
2006년 6월	제2차 금융허브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금융규제완화, 외환자유화 등 제도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및 외국자본의 배척하는 정서극복 등이 미완의 과제로 판단 • 향후 금융허브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구축, 선도금융시장 육성기반 마련, 금융시장 국제화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1차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표 1-1> 금융허브 구축상황 점검 주요 회의 일지(계속)

일시	회의명	주요 내용
2007년 7월	제2차 금융허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7대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현안 해결에 치중하여 부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경쟁국가의 금융혁신과 금융허브 구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우리의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금융선진화 및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선진화를 위한 4대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 ②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서 자산운용시장 육성 ③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④ 금융인프라 개선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2007년 11월	제3차 금융허브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금융허브회의에서 확정된 4대 전략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회사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지배구조 개선, 보험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② 자산운용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업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로드맵 마련 ③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한국투자공사 활성화 ④ 금융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거래소 상장, 금융클러스터 지정방안 검토,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법령 영문

2. 성취도 평가

- 현재까지 금융허브 구축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파악된 추진과제별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1-2>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 과제 이행사항

7대 과제	세부과제	내용
자산운용업 육성	(1)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투신사 구조조정 마무리,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허용 및 최소자본금 요건 완화 등
	(2) 자산운용시장 발전 기반 확충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퇴직연금제 시행('05.12) 등
금융시장 선진화	(1)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6개 금융투자업 경영 등 업무영역 확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채택
	(2) 채권시장 발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와 물가연동국채도입, 국채 20년물 발행, 외국기업의 국내채권 발행
	(3) 외환자유화	외환자유화 추진계획 시행 및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으로 대부분 자유화
지역특화 금융개발	(1) 국책은행을 통한 개발 금융 참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역내금융회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금융 참여 인프라 구축
	(2) 선박투자 활성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확대, 선박투자회사는 2004년 2월 이후 49개사 설립, 28억불 조성
Global Network 강화	(1) 외국금융회사 유치	2004년 이후 12개 금융사가 국내 진출, 금융허브지원팀이 상시 대화채널 구축
	(2)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외환 등 해외진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해소
KIC 설립	한국투자공사 출범	2005년 7월 1일, 한국투자공사 설립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1) 금융규제 개혁	모든 금융규제 DB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2) 금융감독행정 혁신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및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 도입
경영·생활 환경 개선	(1) 외국인 생활환경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이행
	(2) 금융허브 조성 기반 구축	금융전문대학원, 금융허브지원팀,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등의 출범

- 이행과제 중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는 퇴직연금제 시행,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국투자공사 출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등임
 - 퇴직연금제 시행(2005년 12월) 후, 11,371억 원 규모로 약 29만 명이 연금에 가입(2007년 말 기준)하고 있어 향후 자산운용업 특화 금융허브 구축의 발전기반을 마련
 - 또한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규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7월 설립되어 외환보유액 등 90억불을 해외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2년 안에 투자규모를 200억불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
 - 금융감독원은 모든규제를 DB화하고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하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2단계 작업을 통해 총 15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52건을 개선하였음

 - 정부의 금융허브 구축 전략 1단계 “7대 과제”이행에 있어 특히 금융규제 부분에서 많은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설문조사 및 외부연구 등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남
 - 국내 금융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KDI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42.9%) 한국의 경직적 규제시스템을 금융허브 구축의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²⁾
 - 국내 금융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
- 2) 금융허브 1단계 시행 후 금융정책에 대한 체감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2월 KDI가 금융허브 추진에 대한 설문을 일반경제전문가 263명, 금융전문가 252명, 금융회사 직원 514명 등 총 1029명을 대상으로 조사

서도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며 한국의 금융허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36.5%)³⁾

- 세부항목으로는 경직적 규제감독 시스템(42.9%), 적극적 유인책 부족(23.0%) 등을 낮은 경쟁력의 원인으로 지적

— 외부 연구기관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에서도 서울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런던의 GFCI(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은 1년 사이에 43위(GFCI 1, 2007.03)→41위(GFCI 2, 2007.09)→51위(GFCI 3, 2008.03)로 하락⁴⁾

○ 전반적으로 한국의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세부 진행상황은 속도면에서 타 금융허브 추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추진실적에 비해 외부 홍보의 부재 등의 이유로 해외인식의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1단계 전략(금융허브 기반 구축)의 완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등 이미 아시아지역 국제금융수요를 잠식하고 있는 주요 금융허브국가는 해외금융기관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 제공 및 규제 완화를 실시

— 금융허브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제도 개편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진행사항이 느리며, 국민들의 지지가 낮으며, 민간 기관의 소극적 참여, 미약한 외부홍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3) 2007년 1월, KDI가 국내거주 외국인 금융종사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 GFCI는 The City of London의 의뢰를 받아 Z/Yen Group이 외부기관의 평가 자료와 금융업계 종사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6개월마다 각 도시의 금융센터 경쟁력을 평가하는 보고서

II.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및 제언

1. SIFIC의 평가 및 제언

가. 목적 및 산출방법

- 한국증권연구원과 서울시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방법을 통해 아시아 13개 도시⁵⁾의 금융허브 경쟁력 비교연구(Seoul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 SIFIC⁶⁾, 이하 SIFIC으로 표기)를 실시
 - SIFIC은 기존 해외의 금융경쟁력 평가에서 상이하게 평가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델
 - SIFIC은 다른 연구와 달리 아시아 각국의 자본시장 양적 규모의 차이가 큰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경쟁력 구성 항목에 다른 부분과 같은 비율로 반영함

- SIFIC은 국제금융환경을 형성하는 주요요소 전반에 걸친 항목의 복합적 구성을 통해 구축되는 복합지수

5) 동경, 마닐라, 뭄바이, 방콕, 북경, 상하이, 서울, 시드니, 싱가포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타이페이, 홍콩

6) KSRI가 주관하는 서울금융경쟁력 보고서는 매년 SIFIC(Seoul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을 통해 발표되고 있음(1차 보고서는 2007년 11월 SIFIC 1에서 발표되었으며, 2008년 11월 SIFIC 2를 발표 예정)

- 국제금융허브의 입지조건으로는 Kindleberg(1974) 등의 이론적 연구와 Corporation of London 등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전문인력, 규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
- SIFIC은 금융경쟁력을 자본시장, 노동시장, 공공부문, 기타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 경쟁력 및 종합경쟁력을 평가

<그림 II-1> SIFIC 종합경쟁력지수 부문별 항목 구성



- SIFIC은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금융허브 경쟁력 판단의 주요 축으로 설정
 - 런던, 뉴욕 등 금융선진도시의 글로벌금융센터 경쟁력 연구에서는 자국 자본시장의 양적 잠재력을 금융경쟁력 차별요소가 아닌 금융센터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분류

- 런던시가 발행하는 경쟁력 지수인 GFCI에서는 평가요소 비중 결정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보유, 금융관련 규제 등 자본시장의 질적 평가요소의 비중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양적 경쟁력요소는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⁷⁾
- 반면, 자본시장 발달의 정도가 상이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자본시장의 성숙도는 금융허브 구축에 있어 전제조건이 아닌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나. 서울금융경쟁력 평가 결과

- 서울의 금융허브경쟁력은 아시아 주요 13개 도시 중 5위 수준
 - 아시아 지역 주요도시들 중 싱가포르·시드니·동경·홍콩의 4개 도시가 역내 상위그룹⁸⁾을 형성하였으며, 이들 도시들은 평가점수 기준으로 뉴욕 대비 80%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역내 5위인 서울의 경쟁력은 평가점수 기준으로 뉴욕 대비 64% 수준으로 타이페이, 쿠알라룸푸르와 함께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룹 내에서 자본시장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상위그룹과 중위그룹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지역의 주요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단, GFCI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외부지표들의 경우 자본시장의 양적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양적인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경쟁력지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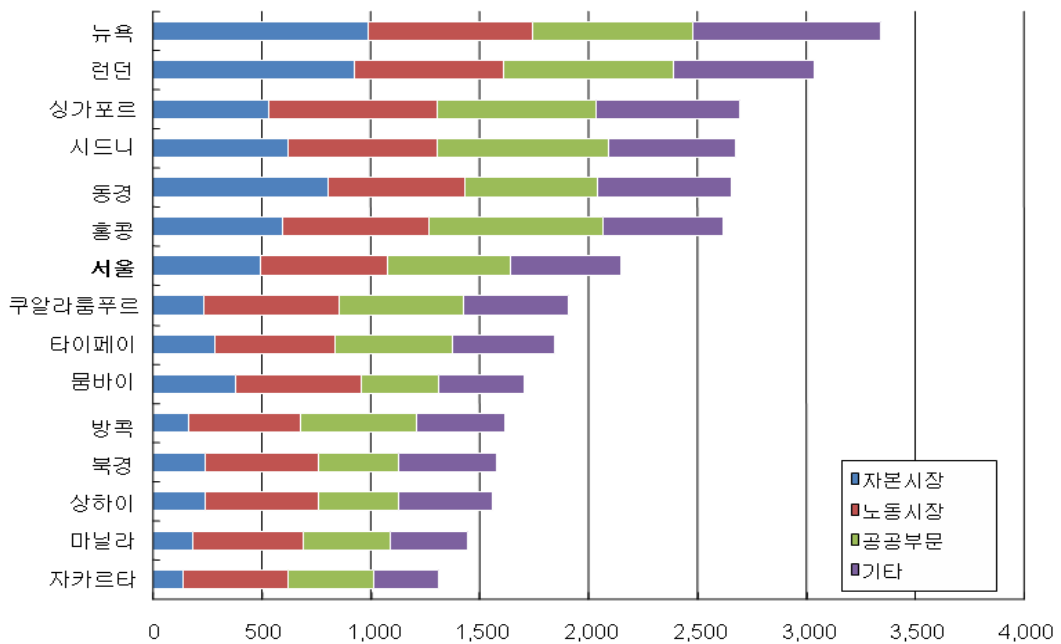
8) SIFIC 보고서는 13개의 도시를 총점에 따라 상위(싱가포르, 시드니, 동경, 홍콩), 중위(서울, 쿠알라룸푸르, 타이페이), 하위(뭄바이, 방콕, 베이징, 상하이, 마닐라, 자카르타)의 3그룹으로 나눔

○ 부문별로 서울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함

— 각 부문별 서울의 순위는 자본시장 5위, 노동시장 6위, 공공부문 6위, 기타부문 5위로 부문별 경쟁력도 전체 경쟁력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반면 상위그룹에 있어서는 동경이 압도적인 자본시장 경쟁력 우위를 보였으며, 시드니와 홍콩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싱가포르의 노동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

<그림 II-2> SIFIC 1(2007) 아시아 주요도시 금융허브경쟁력 현황



○ 서울은 자본시장경쟁력 부문에서 중·하위 그룹 대비 상대적 우위를 보임

— 상위 4개 도시를 제외한 기타 중·하위 그룹의 자본시장 경쟁력은 서울의 60% 미만

- 그러나 상위그룹 대비로 서울의 자본시장 경쟁력은 부문 1위인 동경의 58% 수준으로 선두그룹과는 큰 격차가 존재
- 자본시장 각 부문별로는 파생상품시장(1위)과 채권시장(4위)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노동시장, 공공 부문, 기타 부문에서 서울의 경쟁력은 중·하위 그룹과 대등 또는 열세를 보임

- 노동시장 경쟁력은 금융전문인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노동시장의 국제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 특히 해외인력 고용제도, 국내인력의 국제화경험, 영어능력 등 국제화화 관련된 모든 변수에서 비교대상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받음
- 공공부문 경쟁력에서는 특히 정부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평가를 받음
 - 정부효율성은 비교대상 국가 중 싱가포르가 1위로 벤치마크인 뉴욕(=100) 보다 높은 163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싱가포르(=100) 대비 43점으로 매우 취약
- 기타 부문에서는 특히 “삶의 질”관련 항목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의료, 물가 등을 모두 포함한 삶의 질의 수준뿐만 아니라, 외국인 생활편의 시설 부분의 경쟁력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 부문별 서울의 경쟁력 현황

	비교대상 중 1위 대비	벤치마크 대비
자본시장	58(동경=100)	47(뉴욕=100)
주식시장	39(동경=100)	34(런던=100)
채권시장	41(동경=100)	45(뉴욕=100)
파생상품시장	100(서울=100)	81(뉴욕=100)
자산운용시장	34(홍콩=100)	34(뉴욕=100)
외환시장	36(동경=100)	30(런던=100)
공공부문	71(홍콩=100)	71(뉴욕=100)
사법시스템	69(시드니=100)	68(뉴욕=100)
정부효율성	43(싱가포르=100)	70(뉴욕=100)
금융규제시스템	56(싱가포르, 홍콩=100)	56(런던=100)
기업환경	75(싱가포르=100)	75(뉴욕=100)
조세시스템	90(홍콩=100)	97(런던=100)
노동시장	75(싱가포르=100)	77(뉴욕=100)
노동시장의 국제화	52(싱가포르=100)	65(뉴욕=100)
전반적인 노동시장	52(싱가포르=100)	65(뉴욕=100)
금융전문인력	82(싱가포르=100)	87(뉴욕=100)
기타	77(싱가포르=100)	58(뉴욕=100)
업무환경	79(싱가포르=100)	66(뉴욕=100)
실물경제	79(싱가포르=100)	41(뉴욕=100)
삶의 질	73(싱가포르=100)	81(뉴욕=100)

다. SIFIC 지수 개선을 위한 과제

- SIFIC의 금융허브경쟁력 평가 결과 서울은 다음의 7개 분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

<표 II-2> 서울의 SIFIC 경쟁력 취약분야

세부항목	1위 도시 대비 비중(%)	역내 순위
노동시장 유연성	52.16	10/13
전문인력양성 교육	86.44	6/13
해외인력 유입	51.60	13/13
국내인력 국제경험	51.70	13/13
정부 효율성	43.28	10/12
도시 이미지	65.37	13/13
외국인 편의시설	62.00	9/13

○ 위의 7개 부문을 역내 최대경쟁력 보유국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개선한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종합 경쟁력지수는 약 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 경쟁력 싱가포르 대비 84.5%, 공공부문 87.9%, 기타부문 85%까지 상승하여 전체 경쟁력은 싱가포르의 85% 수준까지 향상

○ 따라서 서울은 7대 취약부분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 편의시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인력의 유입 역시 관련제도 개선⁹⁾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전략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9) 출입국관리법령을 주재(D-7), 투자(D-8) 및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미화 200만 불 이상(내국인 5인 이상 고용) 투자한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05년 9월부터 시행하는 등 내·외국 금융기관 근무자의 국내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그러나 취약부분의 개선만으로는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로서의 성장은 불가능
 - 현재 SIFIC 경쟁력 지수로 볼 때,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 도시로 자리잡은 상위그룹과의 격차는 20%p(싱가포르 대비)의 격차가 벌어져 있어, 취약부분 개선만으로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움
 - 특히 자본시장 경쟁력의 상위그룹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의 획기적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함

2. GFCI의 평가 및 제언

가. 목적과 산출 방법

- GFCI(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영국의 컨설팅회사인 Z/Yen Group이 런던시의 의뢰를 받아 6개월 주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도시의 금융경쟁력 지수
 - 2007년 3월 GFCI 1을 발간한 이래 2008년 3월 현재 GFCI 3까지 발간
- GFCI는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금융허브 경쟁력 관련 지수와 금융업 종사자들이 참여한 4,000여 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
 - GFCI의 금융허브 경쟁력 관련 외부 지수는 금융관련 제도, 경제 자

유도, 비즈니스 인프라에 해당하는 62개의 외부 연구기관 평가 자료를 활용¹⁰⁾

- GFCI 3에서는 소항목 별로 다음의 6개 항목이 추가;

people(3), business environment(1), market access(1), infra-structure(1)

— 금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베이는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되어 GFCI에 반영

○ 연구에 사용된 평가요소(Instrumental Factors)의 선정을 위해, 연구팀은 금융업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14개 주요 평가요소를 선정

— 각각의 요소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수 내 비중이 결정됨

— 선정된 14개 평가요소는 대부분 자본시장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양적 측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본시장의 양적 성숙도는 금융허브구축의 선결조건으로 런던 등 선진 금융시장의 경쟁력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자본시장 질적 평가요소에 간접적으로 양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함¹¹⁾

10) GFCI의 저자는 이러한 외부기관 평가지수를 Instrumental Factor로 명명하고 있음

11) 자본시장의 양적인 평가요소는 SIFIC 및 Mastercard International Research 등의 연구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본시장 양적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의 연구들의 경우 서울의 경쟁력은 GFCI의 연구에 비해 높게 평가됨(SIFIC 전체 13개 도시 중 5위, Mastercard 전체 50개 도시 중 9위)

<표 II-3> GFCI의 주요 평가항목

경쟁력 요소	순위	평균 점수
전문인력 보유 현황	1	5.37
규제체계의 효율성	2	5.16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3	5.08
금융(Business)인프라	4	5.01
고객 접근성	5	4.30
공정(Fair)한 영업환경	6	4.67
정부의 반응성	7	4.61
법인세 체제	8	4.47
영업 비용	9	4.38
전문 서비스 접근성	10	4.33
삶의 질	11	4.30
문화 및 언어	12	4.28
사무실 임대 용이성 및 비용	13	4.04
개인 소득세 체제	14	3.89

나. 서울 금융허브경쟁력 평가결과

- GFCI가 실시한 3차례의 평가에서 서울은 지속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서울은 GFCI의 평점기준 순위와 설문조사에서 모두 금융경쟁력이 낮은 도시로 평가받음
 - 특히 2008년 3월에 발표된 GFCI 3에서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51위로, 이는 지난 9월에 발표된 GFCI 2의 42위에 비해 9계단이 하락

- 아시아 역내 19개 도시를 대상으로 GFCI 순위를 살펴봤을 때, 서울은 GFCI 조사 이래 최하위의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설문 조사 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타이페이, 방콕, 쿠알라룸푸르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음

<표 II-4> GFCI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아시아 주요도시의 GFCI 3 순위		GFCI 1 순위	GFCI 2 순위	GFCI 3 순위	순위변동 (최근 6개월)
1	홍콩	3	3	3	
2	싱가포르	4	4	4	
3	동경	9	10	9	△1
4	시드니	7	9	10	▽1
5	두바이	25	22	24	▽2
6	멜버른	18	19	29	▽10
7	상하이	24	30	31	▽1
8	바레인	-	44	39	△5
9	북경	36	39	46	▽7
10	카타르	-	47	47	-
11	뭄바이	39	41	48	▽7
12	오사카	-	36	50	▽14
13	서울 ¹²⁾	43	42	51	▽9
14	웰링턴	37	46	52	▽6
-	타이페이 ¹³⁾	-	-	-	
-	방콕	-	-	-	
-	쿠알라룸푸르	-	-	-	
-	마닐라	-	-	-	
-	자카르타	-	-	-	

12) GFCI 3 보고서에서 서울은 상위 50위에 포함되지 않아 점수(rating)가 발표되지 않음

13) GFCI 3에서 새롭게 추가된 아시아 역내 도시들인 타이페이, 방콕,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자카르타는 응답자의 수가 너무 작아 GFCI 지수 산출이 불가능

- GFCI의 설문조사에서 국제 금융업 종사자인 응답자들은 향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서울의 발전가능성 또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
 - “향후 2~3년 내 중요한 금융센터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도시” 및 “향후 2~3년 내 사업을 확장할 도시”에 대한 답변에서 아시아 도시들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제외¹⁴⁾
 - 특히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의 국제금융거래 수요 증가로 역내에 새로운 금융센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의 주요한 후보도시로 상하이, 두바이, 뭘바이를 꼽음
 - 뭘바이와 상하이는 대부분 외부기관 평가보고서에서 서울보다 낮은 경쟁력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설문에 응한 금융업 종사자들은 이들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서울보다 높게 평가함

<표 II-5>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제금융센터

중요 금융센터로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				사업 확장 예정 도시			
GFCI 2		GFCI 3		GFCI 2		GFCI 3	
1	두바이	1	두바이	1	두바이	1	두바이
2	상하이	2	상하이	2	싱가포르	2	룩셈부르크
3	북경	3	싱가포르	3	상하이	3	싱가포르
4	모스크바	4	말타	4	뭘바이	4	뭘바이
5	뭘바이	5	북경	5	북경	5	말타

14) GFCI 3(Mar. 2008), Appendix B-The Online Questionnaire 문항 15, 16

- GFCI는 3개의 “ai” center (Dubai, Shanghai, Mumbai)를 아시아의 유력한 제3의 금융허브도시로 주목
 - 이들 3개 도시는 GFCI 2 이후 경쟁력이 10% 이상 개선되는 등 최근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음
 - 런던의 상공회의소는 자체조사를 통해 이들 3개 도시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

<표 II-6> “ai” 센터에 대한 런던상공회의소의 평가

City	Legal and Political Framework	Economic Stability	Ease of Doing Business	Financial Flows	Business Center	Knowledge Creation and Information Flows
Dubai	Very good and improving	Very good	Very good but infrastructure issues	Very good, Rise of sovereign funds	Poor, problem of congestion, working standards and land availability	Average, but improving with greater ICT penetration
Mumbai	Poor, problem of corruption	Excellent	Average with regulation and infrastructure issues	Very good	Poor, problems of land and quality of life	Above average, but some structural weaknesses
Shanghai	Very good, but lack of transparency	Very good	Improving, but still concerns on infrastructure and regulation	Very good, expected to be become a major financial centers shortly	Average, problem of land availability and rising congestion	Average, but improving

- GFCI와 SIFIC의 공통 평가대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 도시에 대한 경쟁력 평가의 결과에서도 서울의 경쟁력은 역내 최하위로 나타남

- GFCI의 샘플도시를 7개 도시로 제한한 경우 서울의 경쟁력 점수는 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6개 도시의 경쟁력 지수 또한 상승하여 역내 순위는 변동 없이 최하위를 기록
- 응답자 분포별로는 전체 응답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금융업 종사자는 서울의 점수를 평균보다 14% 정도 높게 평가하였으며, 런던 및 뉴욕의 응답자(전체 응답자의 48%)는 평균보다 16% 낮게 평가하고 있음

<표 II-7> 아시아 지역 주요도시 평가

도시명	GFCI 순위	점수	응답자수	Mean	Variance
홍콩	1	697	548	726	376.9
싱가포르	2	684	474	707	358.3
시드니	3	650	294	641	537.1
동경	4	636	368	636	516.1
상하이	5	578	268	561	512.6
북경	6	513	240	470	466.2
서울	7	478	183	426	543.9

○ 금융산업 부문별로는 서울은 아시아 역내 도시들 중 자산운용업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음

- GFCI 3에 포함된 도시 중 아시아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산운용업, 은행업, 보험업의 업종별 경쟁력을 조사해 본 결과 서울은 자산운용업에서 점수가 82점이 상승하여 역내 7개 도시 중 5위(15)로 평가

15) 홍콩(1), 싱가포르(2), 시드니(3), 동경(4), 상하이(7), 베이징(8)

- GFCI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서울의 자본시장 하부구조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SIFIC과도 일관됨
 -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SIFIC의 경우 서울은 아시아 중·하위권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시장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서는 여타 도시와 동등 또는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GFCI의 결과와 일맥상통
 - 이러한 결과는 2003년 이후 동북아금융허브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금융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의 금융허브 추진은 두바이, 상하이, 뭘바이 등 여타 경쟁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다. GFCI 지수 개선을 위한 과제

- GFCI에서 서울의 경쟁력 취약분야를 찾기 위해 이와 관련도가 높은 20개의 평가요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대부분의 요소에서 아시아 금융중심지인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GFCI 3에 포함된 62개의 외부평가요소 중 GFCI 3 순위와 상관관계 (R^2)가 높은 20개를 추출하여 역대 최상위의 경쟁력을 가진 싱가포르, 홍콩을 서울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요소에서 서울은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
 - 서울은 20개 요소 중 홍콩 및 싱가포르의 수준의 평가를 받은 요소가 전무하였으며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만이 2nd quartiles 에 속함¹⁶⁾

○ 20개 주요 관련지수의 포지션 개선 시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은 현 수준에서 약 1~19% 가량 개선

— 20개 주요지수의 포지션을 싱가포르, 홍콩, 런던 수준으로 둔 가상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GFCI를 계산한 결과, 경쟁력은 약 1~19%, 순위 상으로는 최고 38위(전체 59개 도시)까지 상승¹⁷⁾

<표 II-8> GFCI 순위와 상관성이 높은 외부평가요소 및 주요도시 포지션

상관성이 높은 외부평가요소	상관관계 (R ²)	서울 (Quartile)	홍콩 (Quartile)	싱가포르 (Quartile)
Relative Global Network Connectivity	0.720	3	-	-
Capital Access Index*	0.512	3	1	1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0.500	2	2	1
European Cities Monitor	0.498	-	-	-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0.490	4	1	1
Financial Market Index	0.490	4	-	1
Index of Economic Freedom*	0.476	3	1	1
Opacity Index*	0.440	4	1	3
Global Office Occupancy Costs	0.429	4	4	2
Price Comparison Index	0.427	3	3	2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0.417	3	1	1
Office with Air Conditioning	0.410	-	2	-
Executive MBA Global Rankings	0.406	-	1	2
Happiness Scores	0.397	-	-	-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0.394	4	2	2
E-Readiness Score*	0.387	3	1	1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0.366	3	1	1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 Vol.*	0.355	3	1	1
Corruption Perception Index*	0.353	4	2	1
Operational Risk Rating*	0.309	4	2	1

16) 8개 요소는 3rd quartiles, 7개 요소는 4th quartiles에 속하는 등 연관성 높은 요소의 절반 이상이 벤치마크 도시인 홍콩,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침

17) 역대 7개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위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GFCI 순위 향상을 위해서는 아래의 11개 관련요소¹⁸⁾의 개선이 시급

— 선정된 11개 관련지수는 GFCI와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홍콩, 싱가포르 대비 순위가 특히 낮으며, 대부분 아시아 도시들을 비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평가요소

- Capital Access Index, Milken Institute (June 2007)
: 전세계 GDP의 92%인 121개국에 대한 은행시스템의 견고함, 자본시장의 다양성 및 효율성 등에 관한 50개 이상의 관련지표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 정도를 보여줌
-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IMD (June 2007)
: 전세계 61개국의 전체 국가경쟁력을 조사
- Index of Economic Freedom, Heritage Foundation (June 2007)
: 경제적 자유에 관한 10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50개의 관련 항목을 161개 국가에 대해 평가. 관련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 Opacity Index, Kurtzman Group (latest available)
: 부패, 법률시스템의 효율성, 역행하는 경제정책, 부적절한 정부관행 및 회계처리, 규제시스템 등 5개 카테고리의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매김
-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Fraser Institute (Sep. 2006)
: 전 세계 71개 국가의 71개 연구소가 공동 작업으로 정부의 경제적 자유 지원정도를 측정. 정부 규모, 법 시스템 및 사유재산 보장, sound money 이용, 무역, 신용, 노동, 사업영역 등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 등 5개 카테고리로 측정
-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Jones Lang LaSalle (July 2007)
: 27개 문항을 통해 각 국의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조사

18) 표 II-7에서 상관성이 높은 관련요소 항목 중 * 로 표시

- E-Readiness Score, EIU (Aug. 2007)
: 한 국가의 정보통신관련 인프라 및 기업,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보통신기술 이용정도를 조사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World Bank (Nov. 2007)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10개의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기업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적은 것을 의미
-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 Volume, Jones Lang LaSalle (July 2007)
: 1년 동안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업용 부동산(사무실, 산업 및 호텔투자 등)의 총가치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p. 2007)
: 전문가에게 150개 이상 국가의 부패 정도에 관한 평가 및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순위를 매김
- Operational Risk Rating, EIU (May 2007)
: 150개 국가의 거시경제, 국제무역 및 자본이동, 금융, 세금제도, 법제도 및 규제, 안전, 정치적 안정, 정부효율성, 노동시장, 인프라로 나누어진 카테고리에서 기업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모니터링하여 매분기마다 업데이트

- GFCI 연구팀은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즈니스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및 정부 투명성 제고, 자산운용업 특화허브 구축,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부분으로 지적
 - 비즈니스 인프라의 경우 특히 오피스용 빌딩의 공급확대 및 임대료 개선, 교통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 규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비자 시스템 용이성 문제,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불리한 법 적용 문제, 그 외 정부 투명성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지목

- 또한 서울의 외부 관련지수 경쟁력 점수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Corporation of London의 시장은 런던금융지구의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대외 홍보가 주요 업무
 - 또한 IFSL(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은 런던시의 금융환경 개선 및 국제금융산업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홍보기관으로서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런던을 적극적으로 홍보¹⁹⁾
-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하부구조 개선 외에 자본시장 관련 산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이 필요
 - 외부지수의 개선만으로는 GFCI 상위 20위 진입이 불가능
 - 자산운용업 등 산업별 구체적 추진과제를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

19) IFSL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부록 2> 참조

III.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 방안

1. 기존전략 보완의 필요성

- 정부의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라 양호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허브 구축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임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이행상황은 제1장에서 서술

- 금융허브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융허브의 비전 수행과 비전과 전략의 적합여부 및 사안의 시기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금융허브 전략의 중요도 및 시기 적절성을 자본의 유·출입,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지역본부 유치 요인 등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해 봄
 - 첫째, 해외자본의 유·출입 촉진 여부에 따라 전략의 우선순위를 분류
 - 금융허브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본의 유·출입 모두 규모의 확대가 요구되나, 일차적 목표인 자산운용 특화허브를 위해서는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우선시 됨

- 둘째, 특정 전략이 외국투자자에게 새로운 수익사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분류
- 셋째, 지역본부 유치 유인 제공에 따른 우선순위 분류

○ 위의 기준으로 기존전략의 파급효과 도달시점,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전략을 아래와 같이 1~4순위로 분류

- 외국금융기관 유치요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전략을 1순위로 배정하고, 기타 편의 제공 여부, 국제금융거래 증대요인 등을 판단하여 4순위까지 배정
- 생활환경개선 및 제도개선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전략이나 단기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4순위 전략으로 분류

<표 III-1>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우선순위

추진전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자산운용업 육성	○			
금융시장 선진화		○		
지역특화 금융개발				
- 국책은행을 통한 개발금융 참여			○	
- 선박투자 활성화		○		
Global Network 강화				
- 외국금융회사 유치	○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	
KIC 설립	○			
규제·감독시스템 혁신				○
경영·생활환경 개선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허브전략은 위에서 분류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표 III-1>에서 제시한 총 8개의 전략²⁰⁾ 중 1순위 3개, 2순위 2개, 3순위 1개, 4순위 2개 등으로 각 순위에 해당되는 전략이 고르게 배정되어 있음

- 특히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 이행상황은 3·4순위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음
 - 해외 지역특화 개발금융 참여는 정부 주도하에 국책은행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은 민간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 면에서 매우 취약하여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시급한 실정임
 - 규제·감독시스템 혁신 전략으로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감독행정 관련 혁신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4순위 전략의 특성상 이것의 효과는 장기간 실행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금융허브전략 이행사항을 살펴본 결과 1·2순위 전략은 대부분 이행상황이 미흡함

20) Global Network 강화전략의 경우 자본의 유입과 유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이를 따로 분류함

- 3대 투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으나 중소형 운용사들이 난립하면서 국내 자산운용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
 - KIC 설립을 완료 하였으나 충분한 운용전문인력 미확충, 자산운용규정 및 내부통제규정 등 핵심 규정 제정의 미완성 등으로 인하여 KIC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사업기회의 제공이 미흡하였고, 의사소통 문제 등과 같은 관련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금융시장 선진화 전략으로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외환자유화 조기시행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였으나 KRX의 IPO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음
 - 금융허브의 중요 요건인 거래소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KRX의 IPO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조건임
- 향후 금융허브전략의 추진은 1·2위 순위 전략으로의 중점적 집중을 위한 보완전략의 설정 및 후순위 전략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 우선순위 전략은 단기간 내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시스템과 감독시스템의 혁신은 단기간에 파급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분야

2. 추가전략 제안

가. 해외 합작을 통한 거래소의 국제화

1) 추진배경

○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자본시장 개방화 추세로 인해 거래소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음

— 거래소간 합병,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상장 및 교차거래나 교차매매 등을 통한 연계와 제휴 관계도 모색하고 있음

- 거래소간 합병이란 거래소간의 통합을 통해 매매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것임²¹⁾
- 동시상장이란 한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새로 상장하는 증권을 동시에 두 군데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임
- 거래소간 연계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의 국제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거래소간 협조에 의해 교차상장이나 교차매매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²²⁾

21) 예를 들어 파리거래소와 암스테르담거래소, 브뤼셀거래소의 합병으로 Euronext가 설립되었으며 스위스거래소와 영국의 Tradepoint간의 합병으로 Virt-X가 탄생함

22) 증권거래소간 연계의 종류에는 교차상장을 위한 연계, 교차회원, 교차매매, 공동매매시스템 등이 있음

- 거래소의 국제화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 규모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허브전략임
 - 외국 발행자와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국제화할 필요가 있음
 - 주식시장을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발행자로 하여금 국내 증시에 동시상장을 유도하여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키고, 거래소간 연계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특화 금융허브전략으로서 중요한 자산운용업과 역외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에 소재한 펀드 및 자산운용사가 여러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함
 - 이를 위해서도 외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동시상장하거나 거래소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2) 기대효과

- 기업측면에서는 동시상장과 교차상장 등을 통해 자본조달비용의 절감, 인지도 상승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외증시에서의 자본조달비용이 국내증시보다 저렴하거나 더 용이할 경우 국내기업의 평균적인 자본비용이 하락하여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기업의 해외 거래소 상장은 고객, 공급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들과 신뢰를 구축하게 되어 기업 인지도 상승에 기여함
- 투자자 측면에서는 거래소의 국제화를 통해 투자기회의 확대와 그에 따른 효용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주식시장에서의 모국투자현상(home bias) 등 비합리적 투자행태 완화에 기여
 -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대상 자산을 해외로 확대시킴으로써 투자위험 절감을 통한 효용증대에 기여
- 거래소의 국제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 동시상장과 교차상장, 교차매매 등은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매매규정에 대해 해외 선진거래소와의 국제 정합성을 요구하므로 거래소 및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됨
 -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유동성 및 규모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거래소의 국제화는 국내 증권시장 위상을 제고하여 한국이 동북아 자본시장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금융허브의 인프라 측면에서 거래소, 즉 한국 증권시장이 동북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역내 아시아 국가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어 국제적 자본거래의 흡수가 가능해짐

- 거래소가 국내 증권업의 해외투자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해외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IB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3) 실천전략

가) KRX의 IPO

- KRX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중요한 인프라이며 KRX의 상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다만, KRX의 상장 이후 공익성과 영리성 간의 충돌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공익성 담보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KRX 상장의 경우 단순한 일반기업의 상장과 달리 KRX에 내재된 특수 문제, 여타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상장 전 풀어야 할 복합적인 과제가 존재함
- KRX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경영 안정성과 지배구조 관련 보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함
 - KRX 상장이후 민간주주 요구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점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외국기업의 IPO 활성화

- 국내 상장관련 법규를 재정비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용이하게 하는 등 외국 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제거
 - 현재 외국기업이 자국 증시와 국내에 동시상장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공시서류 한국어 작성 대행 등 외국 기업이 느끼는 부담요소를 경감시켜주는 세심한 유인책이 필요
 - 또한 각종 공시의무를 단일 기구에서 취합하고,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공시의 경우 공시의무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필요함
 -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장과 관련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수행할 조직의 마련

다)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연계 활성화

-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한 교차상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ETF의 교차상장 추진을 고려해 볼만함
 - 현재 부진한 KRX의 교차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거래소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 거래소에 상장된 우량기업을 교차상장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교차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덜 복잡한 ETF의 상장을 먼저 추진한 후 점차 외국기업의 교차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ETF의 범세계적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AMEX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외국 거래소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RTA(Regional Trade Agreement) 금융부문 협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함

- RTA의 금융부문 협상을 통해 거래소간 연계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룬 일본-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RTA 금융부문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 장외시장 상품의 역외 중개는 정형화되기 어려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국제화하기는 어려우나, 거래소의 역외기능 강화는 일단 일정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육성할만함

- 국제적 거래소는 국내 자본수요자의 증권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수요자의 증권도 상장되어 역외거래도 중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현재 KOSDAQ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신시장임

-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머징 경제권인 동아시아에서는 주시장의 상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상장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는 풍부

- 이러한 동아시아 기업들의 자본수요를 KOSDAQ으로 끌어와 국제적 자본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음

- 한국의 선물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 이머징 경제의 위험관리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

- KRX는 지속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KRX 단독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후진국 거래소 설립지원, 시스템 수출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금융허브구축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함
 - 거래소간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
 - 선물시장의 경우 유동성이 좋은 상품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상품이 상장될 때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가 의심됨

-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화의 성사 가능성이 존재
 - Reg. NMS, MiFID 등으로 촉발된 거래소간 경쟁 및 통합으로 이미 국경을 넘는 거래소간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거래소들은 동아시아의 기점으로 KOSDAQ과 선물시장에 관심을 보임
 - 해외 거래소와 제휴가 성사될 경우 해당기관과 KOSDAQ, 선물시장의 명성이 합해져 동아시아 전체의 자본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아시아 지역 몇몇 거래소들이 해외 선도거래소와의 제휴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KRX에 외화표시 주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외화표시 주식의 도입은 KRX가 “24시간 글로벌 주식거래”의 동아시아 타임존을 선점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환위험을 줄여주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는 전략임
 - 동아시아 주요국 우량기업들이 KRX에 교차상장하는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원화표시 주식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주식시장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나. KIC 재원의 보장

1) 추진배경

- KIC는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업 중심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2005년 7월 1일 설립되었음
- 현재 KIC는 한국은행으로부터 170억 달러, 재정부(외국환평형기금)로부터 30억 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으로부터도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기대효과

- KIC를 활용한 자산운용업 국제화 전략을 통해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

사들에 대한 전략적 자산 위탁을 통한 지역 본부 유치, 해외 투자 네트워크 강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외환보유고를 위탁받아 운용하는데 따른 투자 대상에 대한 제약과 자체 투자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는 선진국 채권 중심의 간접 투자에 머무르고 있어 당초 설립목표인 금융허브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최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투자대상으로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을 30대 70에서 40대 60으로 조정하고 투자 대상도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가 자산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3) 실천전략

- KIC를 통한 금융허브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운용 자금의 규모를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직접 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투자인력의 수와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운용 자금 수준으로는 전략적 외주를 통한 지역 본부 유치나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금융허브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운용 자금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나 외국환평형기금보다는 향후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가칭 “금융허브전략기금”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허브전략기금은 KIC에 대한 자산위탁 뿐만 아니라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 성격의 사업, 이를 테면 금융인력 양성, 금융서비스부문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가 금융부문개발기금(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다. 자본시장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벨기에, 룩셈부르크 형

1) 추진배경

- 중장기적으로 금융허브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자들의 자본거래 시 필요한 국제적 금융장치산업을 국내에 유치해야 함
 - 금융산업은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금융인프라의 장치산업 부문은 일반 제조업과 유사하게 네트워크의 집중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부문임
 - 투자자문, 투자위탁 등과 같은 부문은 해외투자자가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국내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유사하거나 혹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해외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대규모 금융장치로 구성되는 유형의 금융인프라는 잠재적 경쟁자가 유사한 설비를 다시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해외부문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 금융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금융장치 중 대표적인 것은 금융인프라 부문이며, 이는 유형의 네트워크 산업이므로 일단 국제적 거래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구조로 설립될 경우, 금융허브의 구축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 금융인프라는 고도의 IT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IT 산업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 중 선도적 지위를 가진 IT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 부문의 장점임

- 그러나 금융인프라 부문은 단순한 IT 산업의 경쟁력으로만 비교우위를 달성할 수 없으며 선진금융기법의 노하우를 전제로 이를 수 있는 것임
 - 동아시아권 내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전략에 더불어 선진 IT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인 업무제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2) 기대효과

- 현재 금융인프라 부문은 국내 거래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제적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
 - 특히, 금융인프라 부문은 금융허브 전략에서 다른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국제화 수준으로 소극적 양상을 보임

-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그 분야에서 특화된 금융허브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이들은 국제예탁결제기구(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ICSD)인 Euroclear와 Clearstream을 유치하여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특화 금융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음
 - Euroclear와 Clearstream는 1950~1960년대 유로본드 및 유로달러시장의 발달로 인한 예탁·결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음

-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금융인프라 중 예탁, 결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의해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이며, 국제적 금융거래에서 필수적이며 고도의 IT 부문을 필요로 하는 사업영역임
 - 우선 국제적 예탁, 결제 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여타 국제적 인프라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금융거래와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국제적 금융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와 관련된 하부 시스템의 수출도 보다 원활해 질 것임

- 구체적으로 예탁, 결제기능을 국제적 자본거래자가 활용하기 쉽게 국제화 시키고, 본격적인 STP(straight through process) 구축으로 경쟁력을 제고
 - 다양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3) 실천전략

가) 국제적 예탁·청산 및 결제기능의 도입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ICDS의 결제연계국이며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ICDS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으나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결제연계국에서 제외²³⁾되어 있음
 - ICDS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거래는 현지 수탁기관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탁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함

- 우리나라가 ASEAN+3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채권 시장 육성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중 역내 예탁결제기구를 유치할 경우, 아시아에 투자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기구를 이용하게 될 것임
 - 역내 예탁결제기구를 특정 국가에 집중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예탁결제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려는 시도는 실현 가능함

23) Euroclear의 결제연계국가 32개국 중 아시아는 9개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포함됨. 특정 국가가 결제연계국이 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제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적어 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음. 우리나라가 ICDS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거래의 결제에 있어 현금통합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국제예탁기구는 현금통합계좌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박대근(2006))

-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보증기구(실무작업반 2)의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역내 예탁결제기구(실무작업반 3)는 싱가포르가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유치에 나서야 함

- 앞서 거래소의 국제화 전략이 금융허브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한 바, 예탁결제의 국제화 전략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양자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거래소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적 주식, 파생상품 거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국제적 예탁결제기구를 설립하여 거래소의 국제화에 기여
 - 채권거래의 국제화에 그치지 말고 국제적 거래소의 플랫폼과 양립할 수 있는 주식, 파생상품 부문의 국제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국제적 예탁기구와 지분교환이나 업무제휴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제화에 본격화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임

- 국제적 전문성을 갖춘 예탁기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예탁·결제 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대폭 축소
 -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의결권 대행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의결권 대행 업무는 독립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선진 예탁기구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독립 내지 민영화할 필요가 있음

나) STP 구축

- IT의 급속한 발전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인프라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시스템의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²⁴화를 통한 효율화가 필요함
 - 증권거래 및 결제 처리량의 급속한 증가, 증권결제기간의 단축화,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가증권 거래의 STP화가 촉진되고 있음
 - 예탁결제시스템을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STP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증가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 필요

- 미국의 Reg. NMS 및 유럽의 MiFID 도입으로 선진자본시장에서는 거래소 및 IB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IT 부문의 혁신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거래소 및 IB간의 경쟁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선진 시장의 역내 진입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IT 부문의 선도적 국제화는 시급한 상황임
 - 거래 플랫폼에서부터 백오피스(back office) 기능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감안하여 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짐

24) 유가증권 거래의 모든 프로세스를 표준화된 메시지 포맷 등으로 자동연계시켜 전자정보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사무 효율화, 사무인원 축소 등의 비용절감 효과 및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방지 등 운영리스크 축소 효과가 있음

- 신용평가회사, 의결권 대행기구 등도 기존의 노하우에 대규모 IT 기술을 접목하여 신흥시장을 포함하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

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 최근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화된 금융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유가증권의 집중예탁 및 부동화가 정착되어 실물증권의 불발행이 확대됨으로써 실물증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1983년 덴마크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이래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약 57%가 부분적 혹은 전면적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유럽(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실물증권의 거래 위험 제거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됨
 - 아시아에서도 중국, 일본 등이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
 - 전자증권제도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전자화하여 자본시장 백오피스의 비용 효율성을 증대시킴
-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integration)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의 통합화·국제화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

- 해외부문의 유가증권 발행자가 국내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라. 역외금융 기능 강화

1) 추진배경

- 국가간 자본이동의 증가로 역외금융 수요가 급격히 증가
 - 국제결제은행(BIS)의 추정에 따르면 2003년 말 역외금융지역 은행의 총자산은 약 1.9조 달러로 전 세계 은행 총자산의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역외은행의 총 대출은 1.5조 달러로 총 해외대출(은행간)의 13%를 차지
 - 위의 BIS 통계는 전체 역외금융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역외금융지역 은행 자산·대출금 규모는 BIS 통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측됨
 - 증권시장의 경우에도 역외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뮤추얼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AUM(Assets Under Management)은 약 4,00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총 AUM의 3.3% 수준
-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간 거래는 이러한 역외금융을 허용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역외금융시장의 기원은 1960년 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금융 및

외환규제 강화에 대하여 생겨난 유럽내 달러시장인 유로달러시장으로, 이러한 유로달러 시장은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조세혜택으로 비거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역외금융센터로 발전하였음

- 1970년 대 들어 이러한 역외금융센터는 점차 캐리비안,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지로 점차 확산되어 현재 전 세계 50여개 지역을 역외금융센터로 지칭

○ 한국은 1988년 역외금융계정을 도입하여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거래량 등 발전정도에 있어 기타 금융허브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기본적으로 국내의 역외금융거래계정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도입

- 이에 따라 역외금융계정을 둘 수 있는 금융기관을 외국환 거래은행으로 한정하여, 은행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서의 역외금융은 사실상 불허상태

<표 III-2> 역외금융센터의 정의 및 포함 국가

-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e Center, 이후 OFC로 표기함)란 통상적으로 금융 기관 소재지 이외의 통화로서 표시된 금융자산의 거래가 주로 행하여지는 지역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OFC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²⁵⁾
 - 1) 비거주자를 주 고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 2) 비교적 단순하고 고객편이 위주의 제도적 환경
 - 3) 비과세 혜택 또는 역내업무에 비해 매우 낮은 세율 적용

- IMF는 역외금융업을 주로 행하는 OFC의 공통적 특성에 착안하여,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국내총생산의 일정부분에 이르는 지역을 통틀어 역외금융센터로 정의
 - 이에 따라 고소득 40개국 중 영국, 싱가포르, 홍콩, 바하마 등 11개국을 역외금융센터로 정의(한국은 이에 해당치 않음)

- 역외금융센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내외일체형, 내외분리형, 조세회피형 등 세계의 유형으로 분류됨
 - 내외일체형이란 역외시장 및 국내금융시장 간 거래가 자유로운 지역으로, 홍콩, 런던 등이 이에 해당
 - 내외분리형은 역외금융계정을 따로 만들어 국내금융업무와 분리·처리하는 지역으로 동경, 싱가포르 등이 이에 해당
 - 그 밖에 GDP 대비 비거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은 조세회피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바하마, 케이만 군도 등 몇몇 섬 국가들은 국가전체가 역외금융업무를 주요산업으로 취급하고 있음

2) 기대효과

- 주요 국제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외금융거래 여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
 - 싱가포르의 역외금융관련 취급 업무는, 통상적 예금 및 대출 업무뿐

²⁵⁾ Dufey and Giddy(1978), Park(1994), IMF(2000) 등 참조

만 아니라 CD 및 채권업무, 투자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대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세금우대는 역외 신디케이트론에 위한 취득세 면제, 역외 리스크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특혜세율 적용 등 모든 역외금융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

-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혜택 제공은 이미 한국 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이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
 - 한국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 이미 많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내 사무소 및 지점을 설치하고 있음
 - 한국이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 설치를 넘어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금융기관의 역외업무 만큼은 기존 지역본부가 있는 금융허브 수준의 조세우대 및 제도완화가 필요함
 - 내외분리형 역외금융센터로서의 역할 활성화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역외업무를 국내업무와 분리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금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에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3) 실천전략

가) 역외금융허브 전략 마련

- 한국은 주변국 대비 거대한 자본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역·내외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보다는 이들을 분리하여 취급하는 내외분리형 역외금융허브 전략이 더 타당함
 - 홍콩, 영국 등과 같이 내외일체형으로 역내·외 업무 구분 없는 제도완화 및 조세우대는 해외자본의 무분별한 국내입성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내외분리형 시스템은 역외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규제·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적고 비거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역외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우대조치 실시

- 한국은 외국환 은행의 예금 및 대출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우대조치를 제공
 - 역외금융계정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 면제, 법인세 면제(교육세는 0.5% 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역외은행업무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도시들이 모두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역외은행업무가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

○ 은행업을 제외한 기타 부분의 역외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우대조치가 전무

다) 역외금융업무 다양화

○ 역외금융계정은 국내 외국환거래은행에만 허가가 주어지고 있으며, 허용되는 거래의 형태도 극히 일부

- 현재 한국이 허용하고 있는 역외금융의 범위는 비거주자의 차입·대출 또는 외화증권의 발행·인수에만 국한되고 있음

○ 역외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투자신탁업무, 역외리스, 역외보험, 비거주자간 파생상품 거래 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주요 역외금융센터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역외거래 수요에 따라 보험, 재보험, 간접투자상품 등 다양한 업종에 특화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접근을 역외금융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역외금융 허용업종의 다양화가 시급함

라) 역외채권시장 활성화²⁶⁾

- 역외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역외채권시장 제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Asia Bond Market을 통합거래소에 역외 채권시장부로 창설
 - 증권예탁결제원을 역외채권시장 예탁결제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4) 기타

- 홍콩, 싱가포르 등 발달된 역외금융시장에 인접한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기적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역외금융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홍콩과 강력한 유인책으로 최근 역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은 초기 발달과정에서 파격적 세금우대 등을 적극적 유인책으로 제공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유치에 성공하였음
 - 내외일체형 역외센터인 홍콩은 국내·외 구분 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싱가포르는 내외분리형 역외센터 전략으로 역외업무에 대해서는 홍콩 이상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는 홍콩과의 경쟁을 위해 단기적으로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한 바 있음

26) 오규택·박재하(2003)

- 최근 급성장한 금융센터의 경우 역외금융관련 혜택제공을 주요한 경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 두바이, 더블린 등 최근 급성장을 이룩한 센터의 경우 비거주자 대상의 영업을 주로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
 - 특히,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 특별금융지구(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er Dublin: IFSC) 지정을 통해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세계 최대 금융센터인 런던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세계적 국제금융센터로서 성장하였음

IV. 결론 및 시사점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
 - 제1차 금융허브회의에서 단계별 완료 시점을 특화금융허브 구축 2010년(기존 2012년), 최종목표 달성 2015년(기존 2020년)으로 조정
 - 현재 추진전략의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1단계 완료 시점인 2007년 말 정부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특히 금융규제 개선에 있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음

- 반면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조사하고 있는 외부의 연구에서 발표된 서울의 경쟁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SIFIC에서 서울은 홍콩, 시드니, 싱가포르, 동경에 이어 역대 5위로 평가되었으나 상위 4개 도시와의 점수 격차가 현저함
 - GFCI에서 서울은 평가도시 60개 중 52위로 지난 2007년의 평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

- 서울의 금융경쟁력의 취약점으로는 경직적 규제감독 시스템, 적극적 유인책 부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SIFIC에서 금융관련 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및 국제화, 외국인 편의 시설 등에서 상위 도시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

- 설문조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GFCI에서도 서울은 규제, 비즈니스 인프라, 전문인력 등 전반적인 금융환경에서 총체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GFCI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서울이 동아시아권내에서도 새로운 금융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

- GFCI 설문조사와 관련요소들의 상관관계 및 연관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은 다음의 상관관계가 높은 11개 요소들의 경쟁력 증진을 통해 금융허브 경쟁력을 약 19%까지 증진이 가능
 - 이들 11가지 요소들은 GFCI와 상관관계가 높은 20개의 요소들 가운데 서울의 경쟁력이 홍콩·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도시들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를 얻고 있는 부분
 - 이들 요소들의 경쟁력을 홍콩, 런던 등 금융허브 경쟁력 상위 도시 수준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은 약 1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 GFCI 순위와 상관성이 높은 외부평가요소

상관성이 높은 외부평가요소	상관정도(R ²)
Capital Access Index	0.512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0.490
Index of Economic Freedom	0.476
Opacity Index	0.440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0.417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0.394
E-Readiness Score	0.387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0.366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 Vol	0.355
Corruption Perception Index	0.353
Operational Risk Rating	0.309

- SIFIC 및 GFCI 양 연구 모두 자본시장 관련 구체적 추진전략 없이는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어려움을 시사
 - SIFIC의 경우 자본시장을 제외한 기타 부문의 7개 부문의 경쟁력이 역내 최고 수준의 금융허브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전체 경쟁력은 약 6% 증진되나, 역내 주요 금융허브와의 경쟁력과는 여전히 15% 이상 격차가 존재
 - GFCI의 연구결과에서도 취약분야 개선에 따른 최대 경쟁력 증진 시나리오에서 서울의 순위는 최고 38위(전체 59개 도시)까지 상승하나 역내 순위는 변동 없음

- 본 연구는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관련 추진과제로 다음의 전략을 제안
 - 해외 합작을 통해 KRX를 동북아 자본시장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융허브 구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KRX의 상장, 외국기업의 국내 IPO 활성화,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
 - 싱가포르의 “금융부문발전기금”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을 벤치마킹한 가칭 “금융허브개발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의 일부를 KIC의 운용자금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재 KIC는 운용규모가 작으며 자금의 원천의 대부분이 외환보유고이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위탁을 통한 지역본부 유치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
 - 금융인프라 중 예탁·결제 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의해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으로 국제적 예탁·결제기능의 국내 유치, 효율적 STP 구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Euroclear와 Clearstream을 유치하여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특화 금융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단기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역외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해외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국내로 이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
 - 싱가포르는 내외분리형 역외센터 전략으로 역외업무에 대해서는 홍콩 이상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두바이, 더블린 등 최근 급성장을 이룩한 센터의 경우 비거주자 대상의 영업을 주로 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한수 외, 2007, 『서울의 금융경쟁력 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증권연구원

박대근, 2006,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채권 보유비중 결정요인 연구”, 『금융학회지』 제11권 제2호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2007, 『Seoul's International Finance Environment A Comparative Study』, 한국증권연구원

오규택·박재하, 채권시장 국제화 전략, 동북아중심추진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 발표자료, 2003.08

엄경식·장병훈, 2007, 『미국주식시장의 재개편: Regulation NMS의 도입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외, 2006, 『“U.S. 달러표시 주식부문”도입을 통한 한국자본시장 국제화의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한국증권연구원

재정경제부, 제3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도자료, 2003.12.11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금융허브회의 개최, 보도자료, 2005.6.3

재정경제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제1차 금융허브실무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2005.10.26

재정경제부,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05.12.7

재정경제부,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06.6.14

재정경제부, 제2차 금융허브회의 개최, 보도자료, 2007.7.18

재정경제부, 제3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07.11.28

한국은행 제주지점, 2001, 『아일랜드 더블린 國際金融센터(IFSC)의 現況
과 評價』, 한국은행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한
국조세연구원

Kotra · Invest Korea, 200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Invest Korea

<국외문헌>

City of London, 2007,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City of London, 2007,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

City of London, 2008,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

Corporation of London, 2005, "The Competitive Position of London as a
Global Financial Centre"

Dufey, G., and Ian H. Giddy, 1978, *The International Money Market*,
Prentice-Hall

IDA IRELAND, 2004, *Study on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Sector in Ireland*

IDA IRELAND, 2007, *Guide to Tax in Ireland 2007*

IDA IRELAND, 2007, *Ireland Vital Statistics*

IMF, 2000, *Offshore Financial Centers - The Role of the IMF*

Kindleberger, C. P., 1974, "The Formation of Financial Centers: A Study in Comparative Economic History", *Princeton Studies in International Studies*, No.36

KSRI & Z/Yen Group, 2008, *Seoul's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Park, Yoon S., 1994, "A Comparison of Hong Kong and Singapore as Asian Financial Centres." In Roberts, R, ed.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of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Vol. 3. Edward Elgar.

<웹사이트>

Central Bank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f Ireland	www.centralbank.ie
Dublin Chamber of Commerce	www.dubchamber.ie
Dublin Docklands Development Authority	www.ddda.ie
IDA Ireland	www.idaireland.com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Dublin	www.ifsonline.i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	www.ifsl.org.uk
The European Union	europa.eu

<부록 1> 더블린 역외 금융센터

아일랜드 정부와 더블린 시가 1987년 금융허브 육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년 만에 유럽의 역외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더블린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외금융허브 가능성을 살펴봄

1. 아일랜드 경제와 금융산업

- 아일랜드는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후 50년대 후반까지 자국산업 육성 및 내수위주의 성장전략을 펼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950년 후반부터는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확대 정책으로 전환함
 - 투자유치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고성장, 지식산업과 관련된 투자를 집중 유치하였으며 특히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아일랜드 금융산업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며 더블린을 국제금융센터로 만들고자 함
 -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아일랜드는 EU 국가 평균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

- 외국인 투자 중에서도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은 아일랜드를 유럽의 부국으로 탈바꿈시킴

- 아일랜드 정부는 더블린을 세계적인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더블린 금융특구 IFSC(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Dublin)를 만들어 투자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Ireland: IDA Ireland) 주도로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 그 결과 외국 투자기업의 종사자 중 22%(2만여 명)가 금융업에 종사자이며 세계 유수의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IFSC에 입주하는 등 더블린은 세계 2위의 펀드관리 및 자산보관센터 중심지로 성장함

2. IFSC 발전배경 및 현황

- 아일랜드 정부와 더블린 시는 1987년 자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주도로 금융특구인 더블린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를 금융지구로 개발²⁷⁾
 - 정부의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라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북미 및 유럽계 은행의 아일랜드 진출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아일랜드 시장에 제공
 - 정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과 자국의 선진화된 금융인프라, IT 기술, 양질의 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더블린이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IFSC 개발을 추진

27)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으로서 1987년 EU 위원회로부터 IFSC 설립에 관한 승인 및 10% 법인세율 적용을 승인받음

- 아일랜드 정부는 1997년 더블린항 개발청법(Dublin Docklands Area Development Authority Act)을 제정하여 더블린항 개발청(Dublin Docklands Development Authority)을 설립하였고 동 기구를 Dublin Docklands Area 개발을 전담하게 하는 독립적인 추진 부서로 만들어 더블린을 국제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쏟음
 - 그 결과 더블린 IFSC에는 2008년 현재 10700명의 직원,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세계 50대 은행, 20대 보험회사의 절반 이상이 IFSC에 진출해있음
 - 또한 금융센터 안에 호텔, 공연장, 레스토랑 등을 모두 갖추어 IFSC I,II 자체가 금융센터의 역할을 함

- 정부의 정책과 함께 더블린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기인함
 - 양질의 노동력, 금융전문 교육기관, 금융전문인력 풍부, 영어 공용,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 세계적 국제금융센터인 런던과 같은 시간대이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투자 의사결정(front-office service)은 런던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관련된 후선지원활동(back-office service)은 세제 혜택 등으로 총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더블린에서 이루어지게 함
 - 높은 수준의 IT 및 금융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금융 거래의 단계별 분화가 가능함
 - EU 회원국간의 생명보험협약²⁸⁾ 등으로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용이

28) 한국은행 제주지점(2001), 제3차 생명보험협약에서 EU 회원국 중 한 곳에 생명보험사의 본부를 두게 되면 EU 지역 내에서는 보험업의 영업범위에 제한을

3. IFSC 업무영역

- 더블린 IFSC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The Finance Act 1987과 이와 관련된 하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IFSC의 주요 업무는 기업금융(corporation banking), 신탁운용(treasury operations), 뮤추얼펀드(mutual funds), 보험(insurance), 유동화증권(securitisation) 등이며 특히 펀드관리(fund administration) 및 보관업무(custody service)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
 - IFSC는 기본적으로 주 영업대상이 비거주자이고 외국 통화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IFSC 입주기업 승인

- 아일랜드 정부는 더블린 IFSC에 우량기업만 입주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 IFSC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 및 감독에 관한 승인(Taxation and Regulatory approval)을 얻어야 함
 - IFSC에 입주하여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위원회(Certification Advisory Committee: CAC²⁹)의 승인이 필요
 - 승인은 기업의 명성, 경력, 재무구조, 향후 활동, IFSC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

두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

29) 투자개발청(IDA), 재무부, 산업부 및 노동부,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됨

-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세금 감면 대신 자국 고용 증대 및 IFSC에 들어온 세계적인 외국 금융기관이 아일랜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중요하게 고려

<표 부록-1> 더블린 IFSC 입주기관에 대한 심사내용³⁰⁾

구분	심사내용
1. 필수항목	- 회사 지분구조
	- 주요 영업분야
	- 수입·고용 등 회사규모
	- 최근 연도의 회계감사 의견
2. 마케팅 및 발전계획	- 최소 향후 3년간의 회사발전계획
	- 서비스의 방법, 대상지역 및 기관
	- 발전계획기간 중 거래규모, 수익성 및 B/S 예측
3. 사무실 등 시설현황	- IFSC 내의 사무실
	- 설치예정 장비 현황
4. 고용현황	- 예상하는 최소고용인원 (IDA 적정고용수준조언)
5.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기여도	- 고용규모 이외의 경제적 편익, 향후수요 창출 규모 등 향후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기여정도

30) 「Guide to applications for an IFSC Certificate」 (IDA), 한국은행제주지점(2001)에서 재인용

5. IFSC 입주기업 혜택

가. 조세 인센티브³¹⁾

- IFSC를 세계적 금융센터로 육성하고 금융센터 구축에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아일랜드 투자개발청(IDA Ireland) 주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 금융기관을 더블린으로 끌어들이심
 - The Finance Act 1987을 통해 IFSC 입주가 허가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0%³²⁾의 법인세율을 적용함^T으며 이를 통해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을 더블린에 유치
 - 이 특별법은 EU 집행부와의 협약에 따라 1998년 7월 이전에 IFSC에 입주한 법인에 대해 2005년 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 12.5%로 인상³³⁾
 - 1998년 8월 이후 IFSC에 입주한 기업은 2002년 말까지 10% 세율, 이후부터는 12.5%, 2000년 이후 설립되는 법인은 설립시점부터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
 - 다른 EU 국가의 법인세율이 30~45%인 점을 감안할 때 조세인센티브 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지님

31) 한국은행 제주지점(2001) 참조

32) 토지거래 등 금융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거래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

33) 아일랜드에 설립된 비금융업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적용

<표 부록-2> 주요 금융허브 국가의 법인세율 비교

국가	법인세율	국가	법인세율
Ireland	12.5%	Latvia	15%
United Kingdom	30%	Cyprus	10%
Belgium	33.99%	Lithuania	15%
France	34.43%	Hungary	16%
Netherlands	25.5%	Luxembourg	22%
Spain	35%	Portugal	25%
Austria	25%	Sweden	28%
Germany	38.6%	Denmark	30%
China	33%	Malta	35%
Czech Republic	26%	USA	39.5%

자료: IDA Ireland

- 외국인 투자 중에서도 특히 IFSC에 국제금융기관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승인을 얻어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
 - IFSC 내 건물비용에 대해 감가상각을 건물 소유자인 경우 첫 해 100% 인정, 임대인인 경우 54%를 인정하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4% 정율로 상각
 - 신규장비 구입을 위한 지출인 경우 첫해에 100% 상각 인정
 - IFSC에 입주한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³⁴⁾ 등 일부 투자펀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헤지펀드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

34) 1989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개방형 뮤추얼펀드로 양도성증권에만 투자가 가능

- IFSC 입주 기업은 이자 및 배당지급에 대해 원천과세(withholding tax)³⁵⁾를 면제받음
- Finance Act 1995에서는 아일랜드 소재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해외 지사 활동을 통한 모든 수입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

나. 기타 인센티브

- 조세 인센티브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IFSC는 입주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비조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제공
 - 이중과세방지협정, 효율적인 감독체제, 저비용 영업환경, 뛰어난 금융인프라, 입지선택의 자유, 강력한 감독체제, 기금에 대한 순자산가치세 면제 등의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을 제공
 - 전문인력 보유, EU 시장으로의 접근용이 등
 - 정부 관료의 서비스 마인드, 감독당국의 Open door 정책³⁶⁾

35) IDA는 IFSC 입주기업 및 직원, 자선사업 또는 연금기금, 공동투자기금, 종업원주주신탁, EU 회원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의 기업 및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과세를 면제함

36) 감독당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안에서 유연한 감독 기준을 갖고 금융회사들과 직접 면담이나 토론 등을 통해 기준을 유연성 있게 적용해줌

6. 더블린 국제금융특별지구: IFSC

- 현재 더블린 IFSC는 역외 거주자만 대상을 하는 금융센터는 아니나 설립 당시 주 영업대상을 비거주자, 거래 대상 통화를 외국 통화로 한정하였고 외국투자기업에게 주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아일랜드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음
 - 완벽한 내외 분리형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며 IFSC 금융 특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여 해당 거래만 허용하였으며, 국·내외 금융기관 모두 자격이 되면 입주시켜 특별 혜택을 주며 아일랜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함
 - IFSC 입주로 인해 외국 은행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비거주자 및 외국통화 대상으로 거래를 한정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아일랜드 국내 금융시장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내 은행의 국제화에 기여함

- 까다로운 승인위원회(CAC)의 입주 승인 절차를 통해 금융거래 감독, 위험관리 등을 사전에 통제하여 더블린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음
 - IFSC 내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거래 수행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철저히 배제하여 더블린이 조세피난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

- 아일랜드 정부는 IFSC 입주 혜택을 통해 더블린을 국제금융센터로 만들고 자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 정책을 통해 더블린은 20여년 만에 국제금융센터가 됨
 - 설립 초기에는 IFSC 내 역외금융회사보다 아일랜드 국내 은행 수가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430여 개의 역외 금융기관이 상주
 - 실제로 The Finance Act 1995에서 규정한 아일랜드 소재 금융기관의 해외 활동을 통한 모든 수입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모든 금융기관이 아닌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상당한 정도의 자본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더블린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국제금융업무 주체를 더블린에 있는 본사의 자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함
 - 이러한 조세 면제는 대형 은행 및 보험회사들의 IFSC 내 사업체 본부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IFSC 발전을 촉진시킴

<부록 2>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

영국 금융산업 홍보를 위해 설립된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허브 홍보기관의 운영방식과 역할에 대해 알아봄

1. 설립 목적과 기능

-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이하 IFSL)은 1960년대 금융산업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정책 당국에 환기시키고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금융산업 홍보 단체로 출발
 - 당시 영국의 금융회사들은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 이에 금융회사들은 당시 영국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영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에 알리기 위해 IFSL을 설립함

- 현재 IFSL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국내외 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산업 및 경제 동향 분석

- 영국 금융산업을 대표하여 영국의 핵심 금융 상품들을 종합적으로 외국에 소개하는 대외 홍보 활동 수행
 - 이러한 홍보 활동은 각국의 영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종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개최
 - 주로 일반 기업보다는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함
 - 이를 위해 IFSL은 외국에 파견되는 영국 외교관들에게 영국 금융산업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도 담당하고 있음
- 해외에 진출하려는 영국의 금융회사들에게 각국 금융산업의 제도 및 무역 장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2. 재정 및 지배구조

- IFSL의 재정은 매년 영란은행(Bank of England)으로부터 1/6, 런던시로부터 1/6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IFSL에 회원으로 가입한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각종 수입으로 충당됨
 - 회원 금융회사들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음
 - IFSL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은 IFSL이 외국에서 주최하는 각종 홍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음
 - 사업진출 대상국의 고위 금융정책 담당자들과의 만남 주선 등 IFSL을 통하여 해외 영국 대사관들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진출국의 정보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IFSL의 이사회는 금융관련 부서 정부 대표 및 영란은행 대표, 협회 및 거래소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대표, 회원사 대표 등으로 이루어짐

3.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가능성

- 우리나라의 금융허브 전략은 외국 금융회사들의 투자를 국내로 유치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에서 자국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IFSL과는 일단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예로는 토론토시의 주도로 설립된 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IFSL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존재함
 - 금융산업의 국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산업 및 경제 분석은 금융/증권/보험연구원이 은행/금융투자/보험 부문에 대해 각각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연구원의 경우 IFSL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국내 해당 산업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해외에 진출하려는 금융 회사들에게 IFSL과 같이 투자대상국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산업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음

— IFSL의 해외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현지 대사관과 연계한 투자 지원 활동은 현재 KOTRA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음

- 그러나 KOTRA의 경우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IFSL 유사 기관을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 진출하려 하거나 이미 진출한 해외 금융회사들에게 모든 필요한 행정·제도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

- 금융산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 부문과는 달리 제도적 환경이 상이하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여러 지방 정부 부처들이 운영해온 기존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함

-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센터는 기본적으로 금융 당국 및 기타 관련 정부 부처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가능하므로 정부 산하의 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지원

- 이를 위해 영국과 같이 Lord mayor of London과 같은 금융산업 대표 정부 특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기존의 금융산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예산의 제약이 있음

- 각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어 금융산업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일단 정부의 100% 출자로 시작하고 향후 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금융산업 수요에 따라 일부를 회원 금융회사들을 통해 충당하면서 차츰 정부 예산의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으로 판단됨
 - 이미 호주의 Axiss Australia가 이러한 방식을 선택